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Global smart
Healthcare
Industry

CONTENTS

01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미국, Novavax사의 COVID-19 백신 주사제 추가 구매 동의	1
Intellia Therapeutics, NTLA-2002에 대한 조사신약 관련 FDA 승인 취득	1
Cargo Therapeutics, 새로운 CAR-T 세포 치료법 개발 투자 2억 달러 유치	2
캐나다 정부, 캐나다의 백신 및 치료제 생산 가속화를 위해 새로운 연구 허브 설립	2
EU 의회, 활성제약성분(API)의 생산 촉진을 위한 방안 검토	3
일본 백신시장, 코로나 사태 이후 인식변화로 '23년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 전망	3
일본 메디컬·닥터즈 코스메틱 시장, 코로나 사태에도 꾸준한 성장세 지속	4
중국 의약품감독관리국, 「의약품 비임상연구 품질관리규범 인증관리방법」 발표	4



02

의료서비스

바이든 행정부, 메디케어 재정 강화 위해 세금 인상 추진	5
독일, 암 연구를 위한 새로운 자금 지원 방식 발표	5
영국, '23년 희귀질환 치료 실행 계획 발표	6
UAE RAK Hospital, 인도 Apollo Hospital Group과 임상 제휴	6
ADB, 팬데믹 이후 의료서비스 구축에서 민간부문 의료서비스 활용에 대해 분석	7
인도네시아, 경제 특구에 발리국제병원 설립	7
두바이보건청, 건강검진 패키지 이니셔티브 'Dubai In One Day' 출범	8
의료기술, 고객 중심의 혁신 촉진	8

03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은퇴자협회, 가택 물리치료 독점 공급 업체로 'Luna' 선정	9
'22년 미국 성인의 80%, 원격의료 이용	9
'22년 수술용 로봇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3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10
EU 의회, 유럽 헬스데이터공간 관련 EU 집행위의 영향 평가에 대해 분석	10
영국, 유망 AI 의료기술 연구를 위해 1,600만 파운드 지원	11
일본 웨어러블 헬스케어 관련 시장, '27년 약 1조 310억 엔 규모로 성장	11
아마존, 데이터 기반 의료 진전 움직임 속에 기존 헬스케어 사업자 위협	12
디지털 치료제, 만성질환 치료와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12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미국, Novavax사의 COVID-19 백신 주사제 추가 구매 동의

■ 미 정부는 COVID-19 백신 공급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시장 판매로 하는 정책 전환 준비 일환으로 Novavax사 백신 150만회 분 추가 구입 계약 합의

- 동사에 따르면, 매년 가장 널리 퍼진 바이러스 변종에 맞추려는 FDA의 계획에 따라 올 가을에 예상되는 COVID-19 바이러스 업데이트 버전 개발을 지원하고, 물류 측면에서도 소량 용량으로 개발하여 유리
- Novavax사 백신은 Pfizer와 Moderna사의 RNA 기반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없거나 맞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유용한 옵션이며, 기존 주류 백신이었던 단백질 기반 백신 기술로 만든 동사의 백신은 다양한 COVID-19 백신을 제공하고자 하는 미 정부의 요구에도 상응
- Novavax 백신은 타 경쟁사와 달리 '22년 7월 승인 당시 미국 성인의 3/4가 이미 다른 백신을 두 번 이상 접종한 상태였으며, 지금까지 백신을 접종 받은 사람은 8만 명 미만으로 수요가 많지 않은 편
- 지난 1년간 약 90% 하락했던 동사 주가는 이 계약 발표 당일 1% 이상 상승하며 전망이 밝음을 시사

[BioPharma Dive, 2023.02.13.; The Hill, 2023.02.13.]

Intellia Therapeutics, NTLA-2002에 대한 조사신약 관련 FDA 승인 취득

■ 인텔리아 테라퓨틱스(Intellia Therapeutics)는 유전성 혈관부종(HAE) 치료를 위해 생체 내 CRISPR 기반 조사요법인 NTLA-2002에 대한 IND(조사신약)를 신청

- 동사는 선도적인 임상 단계 게놈 편집회사로 CRISPR/Cas9 기술을 이용, 새로운 유전학을 개발하는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생체 내(In-vivo) 프로그램은 정맥에 투여되는 CRISPR을 치료법으로 사용하여 특정 표적조직 내의 직접 질병 유발하는 유전자를 정밀하게 편집할 수 있으며 △생체외(ex vivo) 프로그램은 조작된 인간 세포를 사용하여 암 및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법을 개발

* CRISPR(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는 본래 박테리아가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수단 중 하나로, DNA상의 특정한 염기서열을 뜻함. 크리스퍼 기술은 반복되는 염기서열을 유전자 가위를 통해 유전자 편집과 유전자 조작하는 기술

- NTLA-2002는 노벨상을 수상한 CRISPR/Cas9기술을 기반으로 칼리크레인(Kallikrein) 활성을 지속 감소시켜 유전성 혈관 부종 환자의 발작을 예방 가능한지를 연구하고, 표적 유전자인 칼리크레인 B1(KLK1)을 불활성화 시켜 혈장 칼리크레인 단백질 활성을 영구적으로 감소시켜서 1회 투여 후 HAE 공격을 예방하도록 설계된 생체 내 게놈 편집 후보 물질

[Intellia Therapeutics, 2023.03.02.; Global Genes, 2023.03.02.]

Cargo Therapeutics, 새로운 CAR-T 세포 치료법 개발 투자 2억 달러 유치

■ 스타트업 기업 칼고 테라퓨틱스(Cargo Therapeutics)는 ‘암세포가 기존 치료법을 회피하는 탈출하는 메커니즘’을 극복하는 새로운 CAR-T 세포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임상 시험 등 리드 프로그램 추진 중

*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himeric antigen receptor T-cell)는 암세포 표면에 발현하는 특징적인 항원을 인지하여 종양항원에 특이하게 결합하여 종양세포만을 제거하게 하는 세포 치료법. 항체 치료제나 세포 독성 항암제는 주기적으로 주사해야 하는 단점이 있으나, CAR-T치료는 1회 주사로 약 1년 효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 초기 치료 후 혈액암이 다시 진행된 환자에게는 마지막 옵션으로 면역세포를 살아있는 의약품으로 조작하여 치료하는 CAR-T 세포 치료법을 쓰는데, 교활한 암세포가 이를 회피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므로 이를 억제하고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CAR-T 세포 기술이 필요
- 현재 CD19라는 암 단백질 유도물질로 암세포 표적, 추적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환자의 60%가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재발이 많은 상황이며, Cargo의 경우, CD22 표적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CRG-22 치료제를 세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와 암 진행 중인 거대 B세포 림프종(large B-cell lymphoma, LBCL)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1상 테스트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
- 지난 2월 미국 이식세포 치료학회와 국제혈액 및 골수 이식 연구센터 회의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투약환자의 68%가 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overall response), 완전반응률(complete response rate)은 53%, 또한 독성은 관리가 가능하다는 성과를 보임으로서, Cargo가 CD22 표적 세포 치료법에서 선도로 나아가고 있음을 과시
- Cargo 기술의 잠재적인 응용 프로그램은 광범위하게 투자자 신디케이션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새로운 자본 투입을 통해 LBCL이 재발하거나 CD19 CAR-T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2상 연구 프로그램에 도입할 계획

[MedCityNews, 2023.03.03.; Cargo, 2023.03.01.]

캐나다 정부, 캐나다의 백신 및 치료제 생산 가속화를 위해 새로운 연구 허브 설립

■ 캐나다 혁신과학산업부와 보건부는 1,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5개의 연구 허브 설립을 지원

- (5개의 연구 허브) △앨버타 대학교의 CBRF PRAIRIE 허브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캐나다 면역 공학 및 생물제조 허브 △몬트리올 대학교의 동부 캐나다 전염병 대비 허브 △오타와 대학교와 맥마스터 대학교의 캐나다 전염병 대비 허브 △토론토 대학교의 전염병 건강 정보 및 혁신을 위한 캐나다 허브
- 다학제 연구 허브는 차세대 백신, 치료제 및 진단의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숙련된 인재의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기 위한 교육 및 개발을 지원. 또한 유망한 연구의 상용 제품화를 가속화
- 연구 허브와 관련된 최첨단 연구, 인재 개발 및 연구 인프라 프로젝트를 목표로 하는 5억 7천만 달러 규모의 국가 공모(CBRF-BRIF 대회)도 개시

[Government of Canada, 2023.03.02.]

EU 의회, 활성제약성분(API)의 생산 촉진을 위한 방안 검토

■ 유럽 국가들이 공급망 차질로 의약품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EU의 활성제약성분(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API) 생산 촉진 방안을 검토

- 의약품 부족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잠재적 솔루션으로 유럽 현지에서의 API 생산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
- 리쇼어링을 통한 API의 유럽 현지 생산은 높은 비용(특히 투자비용 및 인력)과 규제 변경의 과제가 있지만, 공급망 강화와 품질 향상에 기여
- 동 연구에서는 △(Novartis/Sandoz) 오스트리아 정부의 지원을 받아 페니실린 생산 △(EuroAPI) 프랑스 투자 은행이 참여하는 유럽 API 생산 이니셔티브 △(Seqens) 프랑스 투자 은행의 재정 지원으로 API 생산 확장 등 EU 현지 생산의 세 가지 사례를 검토
- API의 리쇼어링 촉진 요인으로는 △현지 화학 공급업체와의 계약(예: 핵심 재료) △세금 혜택 고려 △새로운 생산 기술 개발(자동화 가속화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해) △환경 친화적인 기술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인력 요구 사항을 개발하고 기존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정부의 재정 지원

[European Parliament, 2023.03.01.]

일본 백신시장, 코로나 사태 이후 인식변화로 '23년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 전망

■ 일본은 출생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인플루엔자 백신 등 고령자의 접종률이 높은 백신 덕분에 '30년 백신시장은 '21년 대비 16.3% 증가한 1,880억 엔 규모가 될 것으로 후지경제가 전망

- 일본은 '21년과 '22년 출생아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수두, 풍진, 홍역 등 신생아나 미취학 아동의 집단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 정기접종A 대상자는 감소하는 추세
- 그러나 '20년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정기접종에 포함시켰고 '22년부터 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홍보 이후 동 백신의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어 '22년 일본 백신시장은 전년대비 9.5% 증가한 1,769억 규모에 이를 전망
- '23년 이후에는 저출산 대책에 따른 백신의 정기 접종,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한 백신에 대한 인식변화로 시장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인플루엔자 백신 등 고령자의 접종률이 높은 백신이 시장의 성장을 견인
- 한편 '22년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시장은 고령자를 중심으로 접종이 진행되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백신이 승인된 이후 접종자가 늘어나고 있어 전년대비 7.7% 증가한 9,493억 엔 규모에 이를 전망

[富士経済, 2023.03.08.; 믹스, 2023.03.13.]

일본 메디컬·닥터즈 코스메틱 시장, 코로나 사태에도 꾸준한 성장세 지속

■ 시장조사기관 후지경제(富士經濟)는 미백치료와 성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메디컬 코스메틱·닥터즈 코스메틱 시장이 '22년 전년대비 7.7% 증가한 787억 엔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일본의 메디컬 코스메틱·닥터즈 코스메틱 시장은 일반적인 시판루트를 활용하는 닥터즈 코스메틱이 약 80%를 차지하는데 '20년은 인바운드 수요의 소실, 백화점의 임시휴업, 드럭 스토어의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시장이 축소
 - * 메디컬 코스메틱은 기업이 의료기관에 직접 영업활동을 하면서 상품을 수주·납품하고 의료기관이 직접 판매하거나 의료기관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하며, 닥터즈 코스메틱은 시판되고 있는 화장품 가운데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감수하거나 개발에 참여한 점을 소비자들에게 소구하는 화장품이 대상
- '21년은 판매채널의 영업상황 개선과 함께 성분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비타민C를 함유한 상품 등의 판매가 증가한 결과, 닥터즈 코스메틱 시장은 플러스로 돌아서 전년대비 5.4% 증가한 588억 엔 규모를 기록
- 한편 의사의 진찰이 필요한 메디컬 코스메틱은 코로나 사태 이후 미용 시술건수와 환자 수가 증가하는 동시에 의료기관이 판매하는 전문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피부과 개업 및 화장품 판매용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는 클리닉이 늘어나면서 호조를 지속
- 동 시장은 '21년 전년대비 27.7% 증가한 143억 엔 규모를 기록했으며 '22년은 전년대비 18.9% 증가한 170억 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후지경제는 전망

[富士經濟, 2023.01.13; 通販通信, 2023.01.16.]

중국 의약품감독관리국, 「의약품 비임상연구 품질관리규범 인증관리방법」 발표

■ 중국의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监局)은 의약품 비임상 연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의약품 비임상 연구 품질관리 규범(GLP) 인증 관리를 표준화하고자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실시조례」, 「약품등록관리방법」등 규정을 바탕으로 동 방법을 수립

- 인증관리방법은 △총칙 △신청 및 접수 △자료심사 및 현장조사 △비준, 인증서 발급 및 관리 △관리감독 △부칙의 6장 41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목적·절차 등을 규정
- GLP 인증은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이하 '약감국')이 의약품 비임상 안전성 평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GLP 이행 실태를 검사·평가하는 것으로, 약감국 산하의 식품의약품검사검역센터에서 GLP 인증 관련 자료심사, 현장 검사, 종합 평가 및 관련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등 업무를 수행
- 중국에서 의약품 등록 신청 시 적용되는 비임상 안전성 평가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GLP 인증 신청이 의무적이며, 신청서류 제출 시 검사검역센터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접수 여부 결정

[国家药监局, 2023.01.19.; 中国证券网, 2023.01.20.]

의료서비스

바이든 행정부, 메디케어 재정 강화 위해 세금 인상 추진

■ 바이든 행정부는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제안에서 메디케어 신탁기금(Medicare Trust Fund)의 지급 능력 강화를 위해 세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

- 제안된 예산안은 혜택을 줄이지 않고 메디케어 신탁기금의 지급 능력을 최소 25년 연장할 것을 언급하면서, 메디케어 신탁기금의 지급 능력 강화를 위해 연간 40만 달러 이상 소득에 대한 메디케어 세율을 3.8%에서 5%로 인상할 것을 제안

* 가장 최근에 발표된 메디케어 관리위원회 보고서에서는 메디케어 신탁기금이 '28년에 파산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예산안은 고혈압 및 고콜레스테롤과 같은 만성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특정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파트 D 비용 분담 상한을 처방당 월 2달러로 제한할 것을 제안
- 이외에 헬스케어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해 헬스센터에 71억 달러를 제공하고, 미래 전염병 및 기타 생물학적 위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질병예방통제본부(Assistant Secretary for Preparedness and Response, ASPR), 질병예방통제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uthority, FDA), 국립보건원(NIH) 등에 20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

[White House, 2023.03.07.; HHS, 2023.03.09.]

독일, 암 연구를 위한 새로운 자금 지원 방식 발표

■ 세계 암의 날을 앞두고 독일 연방 교육연구부장관인 베티나 슈타르크 바칭거(Bettina Stark-Watzinger)는 '국가항암 10년 사업' 미래포럼의 일환으로 암 연구를 위한 새로운 자금 지원 방식을 발표

- 첫째, 독일 암 원조재단(Deutschen Krebshilfe)과의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암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1,400만 유로를 지원
- 둘째, 암 연구의 주요 미해결 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그랜드 챌린지'를 시작하고,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새롭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모색
- 셋째, 국립암센터(National Center for Tumor Diseases, NCT)를 확장해, 기존의 하이델베르크와 드레스덴 외에 베를린, 쾰른/에센, 튀빙겐/슈투트가르트-올름, 뷔르츠부르크 등 4개 지역을 추가 지정

* 독일 연방 교육연구부는 '19년에 암 연구를 촉진하고 환자의 치료와 회복에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방보건부와 파트너 그리고 환자가 참여하는 '국가항암10년사업(Nationale Dekade gegen Krebs)'을 시작

[BMBF, 2023.02.02.; GERECHTE GESUNDHEIT, 2023.02.03.]

영국, '23년 희귀질환 치료 실행 계획 발표

■ 영국 정부는 '22년 2월에 발표된 16개 행동 방안과 주요 성과를 업데이트하고, 희귀질환 환자를 위해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창출한다는 중요 비전을 달성과 계속 전진한다는 다짐 표출

- '21년 1월 영국은 희귀질환 환자 약 350만 명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적 비전인 'UK Rare Diseases Framework'를, '22년에는 프레임워크 우선순위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발표
- 희귀 질환 환자들은 여전히 의료서비스 접근성, 경험 또는 결과에 있어 열악한 상황에 직면해있으며, 이들이 필요한 치료,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 불평등을 줄이고, 임상 연구 참여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영국 NHS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받도록 추진
- 실행 계획의 주요 공약은 △치료, 약물, 사회복지, 정신건강 및 특수 교육 지원 △게놈 검사에 대한 접근 형평성 및 게놈 검사 결과 해석 지원 △NHS England의 Core 20 Plus 5 프레임워크에 희귀질환을 포함하고, ICS가 이러한 불평등을 줄이는 조치 개발 △희귀병 환자의 임상연구 참여 용이 △영국 희귀질환 프레임워크 및 영국의 실행 계획의 효과 평가 등
- 이러한 희귀 질환의 이해, 진단 및 치료를 가속화하는 협력을 촉진하는 연구 이니셔티브를 위해 생의학 연구센터에 약 790백만 파운드 투자와 영국 희귀질환 연구플랫폼에 12백만 파운드의 자금을 지원

[GOV.UK, 2023.02.28.]

UAE RAK Hospital, 인도 Apollo Hospital Group과 임상 제휴

■ 아랍에미리트(UAE)의 RAK 병원은 인도의 다국적 의료 그룹인 Apollo Hospital Group과의 임상 제휴 파트너십을 통해 최신 의료기술을 사용하여 양국의 건강 분야를 공동 발전시키며, 교육, 원격 의료서비스, 학업 및 실험실 공유 등 지리적 경계를 넘는 협력관계를 구축

- 두바이의 RAK Hospital 환자들은 인도 Apollo Hospital Group과 파트너십을 통해 잠재적으로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우수한 Apollo 의료진의 의료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점
- * RAK Hospital은 UAE 최고의 병원이자 Arabian Healthcare Group의 자회사이며, Apollo Hospital Group은 1983년 설립, 인도 첸나이에 본사를 둔 다국적 의료그룹으로 병원 체인은 물론, 약국, 1차 진료 및 진단센터, 원격의료 클리닉 및 디지털 의료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아프로-아시아에서 가장 큰 의료서비스 제공업체
- Apollo 병원의 특수팀이 RAK 병원에 상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번 국제 파트너십이 RAK 병원의 임상 역량 확장에 필수라는 점을 언급

[LaingBuisson, 2023.03.03.; Zawya, 2023.02.02.]

ADB, 팬데믹 이후 의료서비스 구축에서 민간부문 의료서비스 활용에 대해 분석

■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보건 분야의 증거 기반 민관 협력 (Evidence-Based Public-Private Collaboration in the Health Sector)’ 보고서를 발간하여, 공공-민간 협력이 정부가 팬데믹 및 그 여파에 대응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검토

- 동 보고서에서는 공공-민간 협력의 개념적 프레임워크와 윤리적 원칙을 논의하고, 비정부 제공자가 저소득과 중간소득 국가(LMIC)의 다양한 하위 집단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검토
- 공공-민간 협력과 관련한 경험적 증거와 사례 연구를 통해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협력을 감독할 수 있도록 공공 서비스 내 인재 유치 및 그에 대한 교육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면서 결점을 식별하고 수정, 성과 측정 및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 등 두 가지 정책의 중요성을 확인
- COVID-19 팬데믹 대응에서는 민관 협력이 핵심적이며, △고성능 의료 시스템 투자의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 확인 △글로벌 연구 커뮤니티를 포함한 민간 부문과 시민 사회의 노력 등이 성공적인 대응에 핵심적 역할
- 정부는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증거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 △의료서비스 제공에 민간 부문의 참여를 장려,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

[ADB, 2023.02.16.]

인도네시아, 경제 특구에 발리국제병원 설립

■ 인도네시아는 발리 사누르의 40헥타르 부지에 의료 전용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SEZ)를 건설하고, 발리국제병원을 경제특구 내 덴파사르 시에 설립

- 2백만 명 이상의 인도네시아 거주자는 암 치료, 심장 수술, 건강 검진 및 기타 유형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 해외로 여행하며 이로 인해 매년 IDR 100조(미화 65억 달러)의 외화가 손실
- 의료 전용 경제특구에 건설되는 발리 국제 병원(Bali International Hospital, BIH)은 인도네시아 의료 기업인 PT Pertamina Bina Medika가 주도함으로써 2024년 초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으로, 35개의 집중 치료실, 8개의 수술실, 고급 진단 영상 장치를 갖춘 4개의 카테터 삽입 실험실 및 250개의 베드 등을 수용
- BIH는 미국의 Mayo Clinic과 협력하여 심장학, 종양학 및 신경학 분야 등 5개의 우수 센터를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올 9월 발리에서 세계 관광 네트워크가 주최하는 TIME 2023 정상 회담에서 BIH가 의료관광에 관한 글로벌 싱크탱크를 중재할 예정

[LaingBuisson, 2023.02.15.; the Bali Sun, 2023.02.21.]

두바이보건청, 건강검진 패키지 이니셔티브 ‘Dubai In One Day’ 출범

■ 두바이보건청(Dubai Health Authority, DHA)은 ‘2023 아랍보건박람회(Arab Health 2023 exhibition)’에서 의료관광 이니셔티브 ‘두바이 인 원데이(Dubai In One Day)’를 출범

- 이는 두바이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폭넓은 건강검진 패키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요 대상은 25~50세의 연령층임
- 동 패키지의 특징으로 편의성·신속성·효율성을 들 수 있으며, 예방 차원의 검진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에 기인한 질병의 조기 발견을 지원
- 다수의 민간 의료기관이 참여함으로써 관광객들은 각각의 니즈에 기반해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검진 시간은 패키지에 따라 2~6시간 소요되며 24~40시간 내에 검진 결과를 제공
- 비용과 관련해 △(정기 건강검진) 800디르람(Dh) △(임원 건강검진) 1,400디르함 △(남성 종합검진) 2,900디르함 △(여성 종합검진) 3,300디르함
- 관광객들은 하루 안에 마칠 수 있는 일반건강검진 또는 치과 및 안과 검진 패키지 중 선택 가능

[Gulf News, 2023.01.31.; Zawya, 2022.02.01.]

의료기술, 고객 중심의 혁신 촉진

■ 글로벌 자문기관 ‘맥킨지앤컴퍼니(McKinsey&Company)’는 고객 중심적 혁신이 고객 만족도 및 기업 실적을 동시에 제고한다는 점을 발견

* 동 보고서의 원제는 ‘Accelerating customercentric innovation in medtech’이며, 앞서 ‘13-’18년 간 글로벌 상장기업 300개의 제품 디자인을 추적한 결과 고객 중심성과 비즈니스의 실적 간 강한 상관성이 있음을 발견

- 고객 중심성은 고객의 제품 채택 및 보유기간 증대, R&D 비용 및 제품 생산 비용 저감 등의 이점이 있는 한편, 고객 중심적 혁신을 구현함에 있어 특히 기업 지도자층의 사고 전환이 절실
- 이와 관련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arvard Business Review)’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 고위 관리자 400여 명 중 고객 경험 관리에 있어서 진보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중 36%에 불과
- 의료기술 혁신을 이루기 위해 기업이 필수 행동요인은 △특정 고객의 니즈만 겨냥할 시 일반 사용자에게 가장 필요한 니즈를 놓칠 수 있다는 점 명심하기 △기술의 실현가능성에만 집중하지 말고 사회적 환경(행동 습관 및 환경의 영향) 등, 치료 생태계 전반까지 고려하기 △개발 과정에서 고객 니즈를 면밀히 추적함으로써 표적 집단 설정의 오류 등의 리스크 줄이기

[McKinsey&Company, 2023.03.07.; Medical Buyer, 2023.03.10.]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은퇴자협회, 가택 물리치료 독점 공급 업체로 'Luna' 선정

■ 가택 물리치료 공급 업계의 선두주자 '루나(Luna)'는 '미국은퇴자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Retired Persons Foundation, AARP)' 회원들을 위한 가택 물리치료 독점 공급업체로 선정

* Luna: 현재 미국 27개 주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지금까지 치료한 가택 환자 수는 3만여 명 / AARP: 50세 이상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

- 이로써 약 3천8백만 명에 달하는 AARP 회원들은 직접 내원하지 않고도 각 가정에서 루나 측이 파견한 물리치료사에게서 고품질의 대면 치료를 안전하고도 편리하게 제공받게 될 예정
- 미국인들의 물리치료에 대한 수요는 아주 높아서, 미국신경외과학회(Americ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AANS)에 따르면 △생의 특정 시점에서 허리통증을 경험한 자는 전체 인구 중 80% △매년 물리치료 받는 인구는 10%
- 루나 측이 제공할 서비스의 특징으로는 △전문분야, 위치, 일정 등 다양한 요소에 기반해 AARP 회원들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대에 맞추어 현지 치료사를 연결 △치료의 일관성을 위해 같은 치료사가 치료를 지속 담당 △회원들과 치료사들은 루나 플랫폼을 통해 소통하고 치료 니즈에 대해 논의

[PR Newswire, 2023.02.14.; mHealth Times, 2023.02.13.]

'22년 미국 성인의 80%, 원격의료 이용

■ 디지털 헬스 투자펀드 '락헬스(Rock Health)'가 미국 성인 8,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2년 소비자의 80%가 원격의료를 이용했으며 특히 오디오 전용 및 비동기식 원격의료 방식을 선호

- 원격의료 이용률과 관련해 △(히스패닉) '22년 82%로 전년 대비 9%p 증가 △(55세 이상) '21년 64%에서 '22년 76%로 증가 △(농촌 지역) '21년 60%에서 '22년 73%로 증가 △(보험 미가입자) '21년 37%에서 '22년 50%로 증가
- 한편 원격의료 방식과 관련해 화상 원격의료 이용률은 전년과 같은 수준인 반면, △(실시간 전화) 전년 대비 12%p 증가한 57% △(건강 앱 또는 웹사이트) 전년 대비 11%p 증가한 48% △(이메일) 전년 대비 9%p 증가한 43% △(문자 메시지) 전년 대비 8%p 증가한 36%
- 의료 정보를 제공받는 출처와 관련해 '의사를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77%에 달했으며, 그 외 △건강 앱 28% △웹사이트 16% △의료기술업체 15% △소셜미디어 11% 등의 순
- 한편 데이터 공유에 대한 개방성은 '20년 이래로 점점 위축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 자신의 의료 데이터를 연구기관과 공유하는 것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 응답자는 전체 중 20% 불과

[MobiHealthNews, 2023.02.28.; Healthcare Dive, 2023.02.01.]

'22년 수술용 로봇의 글로벌 시장 규모, 30 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 시장조사기관 '베인앤컴퍼니(Bain&Company)'의 분석에 따르면, '22년 수술용 로봇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30-35억 달러로 '15년 8억 달러 대비 크게 성장

- 수술용 로봇이 외과의에게 정밀성과 시각화를 증대시키는 한편 환자들에게는 환자 경험 및 결과를 개선하기 때문에 지난 10년 간 이에 대한 투자가 급증
- 조사 결과 미국 외과의의 78%가 수술 로봇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으며, 현재 분야별 수술 로봇 사용률은 신경수술 58%, 정형외과수술 51%, 심장수술 50%, 혈관수술 22%의 순
- 한편 기존의 수술 로봇 시스템을 더욱 확장함에 있어 장애요인으로는 △수술 소요 시간 연장 및 그로 인한 효율성 저하 △제한된 임상 증거 △높은 초기비용 및 유지비 등
- 현재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는 로봇 수술을 큰 폭으로 채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야로, 이에 따라 장비제조 업체들은 기존의 특정 플랫폼을 여타 수술에도 두루 활용하기 위해 노력
- 반면 혈관 및 심장수술 분야는 기술의 한계, 시술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로봇 솔루션 채택이 더딜 것으로 전망

[Bain&Company, 2023.02.09.; Medical Device Network, 2023.02.22.]

EU 의회, 유럽 헬스데이터공간 관련 EU 집행위의 영향 평가에 대해 분석

■ EU 의회는 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구축한 유럽 헬스데이터공간(European Health Data Space, EHDS)에 대한 EU 집행위의 영향 평가(IA) 보고서를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

* 유럽 헬스데이터공간(EHDS)은 EU 회원국이 자국 환자에 대한 요약, 전자처방, 영상 및 보고, 검사 결과, 퇴원 보고 등을 호환 가능한 공통 형식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22년 5월에 론칭

- 첫째, 특정 목표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를 선정하였지만 특정 정책 산출물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운영 목표는 정의하지 않아 EU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이 미흡
- 둘째, 전체적으로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분석하였지만 환경 영향에 대한 분석은 목표에 따라 정당한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제한적
- 셋째, 사회적 영향과 관련해서 의료 서비스 제공자, 환자, 연구원 및 혁신가를 위한 의료 지출 절감 측면에서 표현되는 혜택을 정량화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의료기술 분야 기업의 95%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미약
- 넷째,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쟁력에 대한 분석은 거의 전무

[European Parliament, 2023.01.11.; EIPA 2023.03.01.]

영국, 유망 AI 의료기술 연구를 위해 1,600만 파운드 지원

■ 영국 보건사회복지부는 AI 의료기술 중 가장 유망한 9개 연구를 가속화하기 위해 약 1,600만 파운드를 지원할 계획

* 가장 유망한 AI 기술의 테스트 및 배포를 가속화하기 위해 Health and Care Awards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을 포함해 3회에 걸쳐 86개의 AI 의료기술 연구에 1억 2,300만 파운드를 지원

- 지원하는 주요 기술은 △유방암 검사를 실행하는 AI 기반 알고리즘(150만 파운드) △대장 내시경 이미지를 처리하고 대장암의 징후를 감지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AI 기반 의료기기(250만 파운드) △전자건강기록을 분석하여 진단되지 않은 희귀질환 환자를 식별하고 최상의 관리 옵션을 추천하는 AI 시스템(140만 파운드) △조산 또는 사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가장 높은 임산부를 식별하는 온라인 의료기기(190만 파운드) 등

[GOV.UK, 2023.03.03.]

일본 웨어러블·헬스케어 관련 시장, '27년 약 1조 310억 엔 규모로 성장

■ 일본의 웨어러블·헬스케어 관련 시장은 고령화 사회 진전, 온라인 진료 보급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새로운 서비스와 솔루션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 '27년 동 시장은 '21년 대비 84% 증가한 1조 310억 엔 규모에 이를 전망

- 웨어러블·헬스케어 관련 기기는 코로나19 특수로 증가했던 체온계나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은 수요가 급감하는 반면 스마트워치, AR/VR 니즈가 늘어나고 있는 스마트 글라스/HMD, 바이탈 데이터 취득이 가능한 히어러블 디바이스 등이 성장하며 시장을 견인
- 시스템과 서비스의 경우 B2C용은 웨어러블 단말기 보급과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온라인 진료, 복약지도 같은 새로운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조금이 지급되는 간병관련 시스템·서비스 수요가 견조하다는 점에서 '22년에도 시장은 확대될 전망

■ 일본의 웨어러블·헬스케어 관련 기기 및 시스템·서비스 시장 ■

	'22년 전망	'21년 대비	'27년 예측	'21년 대비
기기	3,113억 엔	15.7%	5,026억 엔	86.8%
시스템·서비스	3,280억 엔	12.7%	5,283억 엔	81.5%
합계	6,393억 엔	14.1%	1조 310억 엔	84.0%

- 한편 스마트 기기나 IT, IoT를 활용해 건강효과를 높이는 헬스테크(펩테크, 스포츠테크, 슬립테크, 브레인테크 등) 시장도 '27년에는 '21년의 약 2배인 2,743억 엔 규모에 이를 전망

[富士キメラ総研, 2023.02.27.; The Medical AI Times, 2023.02.13.]

아마존, 데이터 기반 의료 진전 움직임 속에 기존 헬스케어 사업자 위협

■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진단·치료가 중심이었던 의료는 예방에서 예후까지 개인의 니즈에 맞게 변화하고 있으며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도 병원을 벗어나 확장되는 등 패러다임이 이동

- 이러한 상황에서 빅테크를 비롯한 타업종 기업들이 헬스케어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표적 주자인 아마존(Amazon)은 △디바이스 관련 사업 △헬스케어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헬스케어 IT사업 등 3가지 사업을 전개
- (디바이스 사업) 스마트 워치를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마존은 후발주자인 탓에 존재감이 크지 않지만, 헬스케어 서비스는 One Medical 인수로 COVID-19 확산 이후 세계적으로 수요가 커진 원격의료 서비스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할 전망
- (헬스케어 IT사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료의 확산되면서 헬스케어 클라우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최고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격의료, 처방약 배송, 환자 모니터링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해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할 방침
- (클라우드 서비스) 프라이머리케어부터 2차·3차 의료, 의약품 개발에 이르기까지 헬스케어 전반에 걸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진단·치료 고도화, 의료현장의 운영 효율화에 주력하는 등 의료관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해 더욱 존재감을 높여갈 계획

[みずほ銀行, 2023.02.16.; Cloud Watch, 2022.11.21.]

디지털 치료제, 만성질환 치료와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 만성질환(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호흡기 질환 등)은 '30년 전 세계 사망 원인의 84%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종합적인 질병관리 솔루션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치료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질병관리 솔루션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21년 디지털 헬스 자금 조달은 전년 대비 79% 증가한 572억 달러를 기록
- 연구에 의하면 디지털 질병관리를 통해 3개월 동안 △주요 심혈관 사고(MACEs) 발생률이 45% 감소 △환자의 30일 재입원률이 50% 감소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헤모글로빈 A1c(HbA1c) 수치도 1% 포인트 낮추는 등 디지털 치료제가 만성질환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
- 디지털 치료제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연결된 의료기기를 통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측정 및 피드백 △환자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속적인 정보 제공 △맞춤형 코칭과 지원 △게임화된 도전과 인센티브를 통한 행동 수정 △활동적인 가상 환자 커뮤니티 구축 △디지털 헬스 몰 △환자 교육 △건강 사고를 예측하고 방지하기 위한 첨단 분석 등의 요소가 필요

[McKinsey&Company, 2023.01.27.; Medical Economics, 2023.02.28.]